

제20대 학부총학생회 선거 ‘스무 살’ 선본 단독출마

지난 19일 선거운동 착수, 이 달 29일 선거 “우리가 학교의 주인이 되자”



▲ 제20대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 출마한 ‘스무 살’ 선본의 박찬(정), 최성림(부) 학우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임명 서울부총장은 아직 미확정

지난 10일자로 우리 학교의 직제가 개편되고, 기존의 부총장 직위가 업무에 따라 교학부총장 겸 학장, 대외부총장 겸 기획처장, 서울부총장 겸 테크노경영대학원장으로 나뉘었다. 또한 교학부총장 및 대외부총장을 역임할 인사가 확정되었다. 교학부총장 겸 학장에는 기계공학전공 김상수 교수가, 대외부총장 겸 기획처장에는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장순흥 교수가 각각 임명되었다.

김권호 기자 / bloodyred@kaist.ac.kr

부총장 직제를 바꾼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학부총장 : 미래지향적인 대학으로서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역할을 나눔으로써 자신의 일에 더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게 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직책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교학부총장 : 거의 기존의 부총장과 비슷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교무, 연구, 행정 등과 같은 일을 교학 부총장 겸 학장이 전담하게 된다. 학교가 나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서로간의 신뢰와 이해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도 생각한다.

대외부총장 : 학교의 기획, 홍보 그리고 대외협력과 관련된 일을 맡는 직이다. 교수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교육과 연구이다. 대외 부총장 겸 기획처장은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일을

한다. 더불어 재정확충 및 학교 홍보 역시 대외 부총장 겸 기획처장의 역할이 된다

임하는 각오는?

교학부총장 : 러플린 총장의 취임 후, 학교 구성원간의 이해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구성원간의 차이는 타 대학과 경쟁 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 교학 부총장이자 학장으로서 총장, 교수, 학생간의 소통을 돕겠다.

대외부총장 : 책임감을 느낀다. 좋은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마땅한 돈이 필요한 법이다. 현재의 우리학교 처럼 학생과 교수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은 드물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비전과 기획이 있어야 하며 또한 외부에 보여지는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에 초석을 놓겠다.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 학교 학사과정 학우들을 대표할 제20대 학부총학생회 선거가 오는 29일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 결과 최종적으로 등록된 후보단은 ‘스무 살’의 03학번 전산학전공 박찬(정) 학우, 04학번 화학과 최성림(부) 학우로 한 팀의 후보단만이 지원했다. 두 후보는 모두 18대 동고동락 총학생회, 19대 좋은친구 총학생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스무 살’ 후보단은 지난 19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으며, 선거 전날인 오는 28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3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열어 학우들과 후보단이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정후보로 출마한 박 학우는 “이전부터 학생회에서 일하면서, 학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야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금까지 총학이 이루지 못한 부분을 계승, 발전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스무 살’ 후보단은 ‘대학생으로서 우리가 학교의 주인이 되자’는 목표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다.

단일 출마한 후보는 전체 학우의 50% 이상의 학우가 유권자로 참여한 가운데, 50% 이상의 학우들로부터 찬성표를 받으면 당선된다.

전준 기자
junejune1117@kaist.ac.kr

‘스무 살’ Q&A

출마 계기는?

학내의 문제는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총학 활동을 시작했다. 총학 후보에 출마한 것도 그 연장선상의 일이다.

기존의 총학과 차별화된 점은 있는가?

총학 운영의 철학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성명서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우들이 먼저 자신들의 의견을 응집해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처음 총학생회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같은 목표가 있었다. 첫째, 학우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학생회를 만들자는 것이고 둘째, 학생회를 학우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향점은 우리도 유효하다.

학교 측과 어떻게 대화해 나갈 생각인가?

학교 측은 먼저 마음가짐과 시스템을 바

꾸어야 한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한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학생 대표가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책 중 사회, 정치적인 사안의 비중이 높는데

대학생으로서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우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또한 학우들과의 의사소통 창구를 자유롭게 열어두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숨김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대비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학생으로서 통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국대학생연합’에 참여하겠다.

전준 기자
junejune1117@kaist.ac.kr

“바이러스 체이서, 수동검사하지 마세요” 오피스 파일, 무차별 삭제?

“바이러스 체이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설정을 바꾸세요”

바이러스 체이서가 PPT, DOC 등 오피스 파일을 무차별 삭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ara게시판에는 갑자기 작업해 놓은 PPT 파일이 삭제되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ara ID가 real인 한 학우는 “이번주에 있을 학회에서 쓸 PPT 파일이 삭제되었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실에서 비슷한 사례가 제보되었다. 이에 다수의 학우들이 바이러스 체이서를 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3면에서 계속>

지 면 안 내

5 기획
기숙사 청결 문제

6 기획
대학원총학생회 진단

7 기획
학부총학생회 진단

10 학술
점술 들여다 보기

13 문화
온라인 만화